

04 고교 과목 별

약술형 논술 — 가장 저평가된 문

수능 공부가 그대로 준비가 되는 구조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왜 저평가인가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한 대학의 실제 구조 — **13문항 80분 · 수학 범위는 수학 I · II 뿐 · EBS 연계**
- ◆ **기본점수 870점 + 논술 130점** — 실제로 갈리는 것이 얼마인지 보이는 배점 구조
- ◆ 일반 논술과 약술형의 차이 여섯 — **따로 쓰는 준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 ◆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셋 (이름 · 화제성 · 상품이 안 됨) · 확인하는 차례 다섯

01 · 숫자부터

수능 공부로 준비하는 논술

「논술은 우리 애랑 상관없어요.」

일반 논술을 떠올리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긴 지문, 원고지, 몇 달의 준비. 그런데 **약술형**이라 불리는 갈래는 생김새가 다릅니다. **학교 시험의 서술형 문제에 가깝습니다.**

한 대학의 2027학년도 논술전형 구조를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무엇	어떻게
문항 수	13문항 (인문 국어 8 + 수학 5 · 자연 국어 5 + 수학 8)
시험 시간	80분
출제 범위	국어 — 1학년 국어·문학·독서·화법과작문·언어와매체 수학 — 수학 I·수학 II
배점	1문항 10점 · 기본점수 870점 + 논술 130점
연계	수능특강·수능완성 연계교재를 활용해 출제
수능최저	국어·수학·영어·사/과탐(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우리 요강 자료와 일치함을 확인)

여기서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 — 수학 범위가 수학 I·II 뿐입니다. 미적분도 기하도 없습니다. **고2까지의 내용**으로 치릅니다.

둘 — EBS 연계입니다. 수능특강·수능완성을 활용해 출제합니다. **수능 준비가 그대로 논술 준비가 됩니다.**

셋 — 최저가 낮습니다. 1개 영역 3등급이면 됩니다. 앞서 보셨듯 수시 최저의 대부분이 2~3개 영역의 등급 합을 요구합니다. 한 과목만 3등급이면 되는 조건은 **매우 험거운 편**입니다.

출처: 해당 대학 2027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보도(2026년) 및 저희가 집계한 2027 수시 요강 자료. 수능최저 조건은 두 자료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해마다 바뀌니 지원 전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02 · 무엇이 다른가

일반 논술과 약술형

같은 「논술」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 논술	약술형
답안	긴 글 — 논증	단답·단문
문항 수	서너 문항	10문항 이상
한 문제에	20~30분	5분 안팎
범위	넓고 깊습니다	교과서·EBS
난이도	대학 수준	학교 정기시험 수준
준비	따로 몇 달	수능 공부와 겹칩니다

맨 아랫줄이 이 갈래의 핵심입니다. **따로 쓰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수능특강을 푸는 것이 곧 준비이고, 다른 것은 「서술형으로 답을 적는 연습」 뿐입니다.

배점 구조를 보십시오

앞의 표에 **1문항 10점 · 기본점수 870점 + 논술 130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00점 만점처럼 보이지만 **870점은 모두에게 주는 기본점수**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130점**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신도 수능도 아닌, 그날 쓴 답안 130점이 당락을 정합니다.** 내신이 세어지지 않는 자리라는 말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해당 대학 2027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배점 구조는 대학마다 다르니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03 · 왜 저평가인가

아는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이 갈래가 덜 알려진 데는 까닭이 몇 가지 있습니다.

Q. 하나 — 「논술」이라는 이름이 겁을 줍니다

이름만 보고 「우리 애는 글을 못 써서」로 접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대로 **단답과 단문**입니다. **학교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글을 길게 쓰는 능력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짧게 적는 것**입니다.

Q. 둘 — 상위권 대학이 아니어서 화제가 덜 됩니다

입시 이야기는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약술형을 두는 곳은 대개 그 바깥이라 **기사도 설명회도 적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학생 수로 보면 훨씬 많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정보가 적은 자리일수록 알아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Q. 셋 — 준비 기간이 짧아 상품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까닭도 있습니다. **몇 달짜리 강의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수능 공부와 겹치고, 따로 배울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앞장서서 알릴 이유가 적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팔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경쟁률은 낮지 않습니다. **준비 비용이 낮다는 것이지 불기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이는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 이 갈래의 값입니다.

이 장의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공시 자료로 뒷받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약술형은 확인이 준비의 대부분입니다.

차례	무엇을	어디서
1	어느 대학이 이 방식을 쓰는지 찾습니다	각 대학 요강
2	출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학이 어디까지인가
3	수능최저를 확인합니다	몇 개 영역 몇 등급인가
4	기출을 한 번 풀어 봅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
5	고사일을 달력에 찍습니다	요강 전형 일정

4번을 꼭 하십시오. 기출을 보시면 「이 정도면 해 볼 만하다」거나 「생각보다 어렵다」가 그 자리에서 판가름납니다. 설명을 열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푸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적는 연습은 따로 하셔야 합니다. 답은 아는데 어떻게 적어야 점수가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학이 공개한 예시 답안을 보고 형식을 익히십시오. 이걸 며칠이면 됩니다.

약술형 논술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그 대학이 약술형인지 일반 논술인지 확인했는가
- ☐ 문항 수 와 시험 시간 을 보았는가
- ☐ 수학 출제 범위 가 어디까지인가
- ☐ EBS 연계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 ☐ 수능최저 가 몇 개 영역 몇 등급인가
- ☐ 기본점수 가 얼마이고 실제로 갈리는 점수가 얼마인가
- ☐ 기출 을 한 번 풀어 보았는가
- ☐ 고사일 이 다른 지원과 겹치지 않는가

여섯 번째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기본점수가 크면 실제로 갈리는 폭은 좁습니다. 한 문제의 무게가 그만큼 큼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술형 논술은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가 수능과 겹치고 EBS 연계라, 이미 하고 계신 공부가 그대로 준비입니다. 따로 하실 것은 기출을 풀고 예시 답안을 보며 적는 형식을 익히는 것뿐이고, 그건 며칠이면 됩니다. 그 며칠로 원서 한 장이 더 생깁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약술형 논술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수능을 잘 보면 정시로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둘은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약술형 논술은 수능 공부와 범위가 겹칩니다. 그러니 준비한다고 해서 정시 준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공부로 두 개의 문을 여는 셈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하루에 정해집니다.** 그날 한 과목이 흔들리면 정시 선이 통째로 내려갑니다. **수시 한 장이 그때 남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다만 수시에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못 갑니다. 그러니 「**붙으면 갈 자리**」에만 쓰십시오. 정시로 갈 수 있는 선보다 낮은 곳에 쓰시면 안 됩니다.

Q. 글씨가 나쁘면 불리한가요?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글씨를 점수로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볼 수 없으면 채점이 안 됩니다.** 단답·단문이라 숫자나 기호 하나가 답인 경우가 많은데, 6과 0이 구분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잃습니다.

실전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답을 적는 자리**입니다. 답란이 정해져 있는데 엉뚱한 칸에 적거나, 여러 답을 한 칸에 몰아 적으면 **맞아도 점수가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출을 실제 답안지 형식으로 한 번 써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보다 **형식에서 잃는 점수가 아깝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약술형 논술은 **새로 배우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하는 공부를 다르게 쓰는 자리**입니다. **기출 한 번**이면 내 자리인지 아닌지 아십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한 대학의 공개된 논술전형 구조를 예로 든 것입니다. 대학마다 문항 수·시간·범위·배점·최저가 모두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지원 전에는 목표 대학의 최신 요강과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